

오피니언

다산포럼

염무웅



금세기 안에 중국이 세계 최대의 경제 강국이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미묘한 전환의 시대에 미국 한 나라에만 매달리지 말고 적절하게 균형과 자주성을 견지하는 것은 우리의 앞날을 위해 사활적인 중요성을 갖는다고 하겠다.

지금까지의 거시적 관점에서 이제 제주도 강정마을로 초점을 옮겨보자.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곳은 서귀포시에 붙은 조그만 포구이다. 수려한 구름바위 바위해안으로 인해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던 곳이다.

강정마을이 우리에게 뜻하는 것

출구를 찾지 않을 수 없는 고비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예의 주시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사안은 리영희 선생과 칼 폴라니가 통찰한 이러한 '전환'들이 다른 어느 곳에서도 우리 한반도에서 더욱 강도 높은 위험으로 표출될 수도 있다는 점이 아닐까 한다.

중국의 위상이 날로 달라져가고 있음도 염려했던 사실이고, 특히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중국이 한국 제1의 교역상대로 떠오른 데서 드러나듯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그런데 그 강정마을이 벌써 5년째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려는 당국과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의 싸움으로 갈등을 겪고 있으며, 마을회장 강동균씨는 지난 8월에 구속되었다. 그러나 주민들이 오랜 삶의 터전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싸움에 나서지는 것은 정당하며, 정든 땅이 접근불가의 군사기지로 변하는 데에 분노적인 거부감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기지반대 운동에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제주도 각처에서 달려온 사람들과 문정현 신부를 비롯한 많은 평화 운동가들이 동참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강정마을은 이제 중국이 세계 최대의 경제 강국이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들은 이제 지난 2006년 5월에 경기도 평택의 대추리·도두리가 그러했듯이 온 세상의 주목을 받는 문제의 장소가 되었다.

평택 미군기지 건설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시도가 의미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한 마디로 그것은 중국의 부상 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만 설명될 수 있다.

나로서는 노엄 촘스키 교수와 평화운동가 매트 호이가 발표한 공동호소문 "이런 군사시설을 건설하는 목적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 중국으로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 전진기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다"라는 주장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장차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 미국의 일방적 패권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시점, 즉 중국이 자신의 국가적 역량에 자신감을 가지게 될 어느 시점에 양국 간 무력충돌이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다.

물론 그것은 결코 일어나선 안 될 시나리오지만, 그러나 그런 최악의 경우조차 예상하여 우리의 전략적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마땅한 의무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은 미래세대를 위한 일종의 안전보장 운동이다.

(영남대 명예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디자인 전시작품 수난, 광주 '문화도시' 맞나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 작품들이 수난을 당하고 있다. 미술품 위에서 배드민턴을 치거나 라면을 끓여 먹는가 하면 심지어 가져다먹고도 있다니 도무지 믿기지가 않는다.

비엔날레 전시관 앞마당에 설치돼 있는 '몸데가르송의 여정'은 합판과 나무를 이용해 방 형태의 작은 전시실을 따로 만들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이 공간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휴대용 가스 버너를 가져와 라면을 끓여 먹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비엔날레 전시관 앞마당에 설치돼 있는 '몸데가르송의 여정'은 합판과 나무를 이용해 방 형태의 작은 전시실을 따로 만들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이 공간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휴대용 가스 버너를 가져와 라면을 끓여 먹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대나무로 만든 작품 '나의 의회'는 휴게실로 착각한 일부 관람객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자주 벌어진다.

신용카드 수수료를 공정성부터 따져라

영세 사업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한국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는 18일 서울에서 '범 외식인 10만 결의대회'를 열고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100만 명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음식점 업자들이 실행해서 들어가는 것은 타업종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카드수수료를 때문이다. 현재 생계형 업종인 일반 음식점의 경우 카드 수수료율은 2.7% 수준이다. 반면 대형마트는 1.6~1.9%, 백화점 입점업체 2.0~2.3%, 골프장 등 사치업종은 1.5%에 지나지 않는다.

일부 대형 카드사들은 지난해 조단위의 전분화적인 순이익을 냈다. 그럼에도 영세 사업자에게만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또한 그 이익을 받은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기업가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32억 원대의 '필드'도 수난을 당하기는 마찬가지다. 백자로 만든 관 사이로 아이들이 들어가 노는가 하면 관 위에 올라타서 사진을 찍는 관람객도 많으며 전시 관계자들이 이를 제지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광주는 자타가 인정하는 문화예술도시로서 시민들의 문화적 소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엔날레와 디지털비엔날레를 매년 번갈아 치르면서 그 위상을 굳혀가고 있지만 시민들의 관람문화가 이 정도라면 '두 얼굴'을 지녔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시민들은 관람문화의 품격을 높이고, 일부 관람객들의 일탈행위에 대해선 이를 지적하고 제지하는 시민정신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비엔날레 조직위 측은 관람객들이 전시작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슨트 배치와 역할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준비와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관람객만 탓할 수는 없는 일이다.

無等鼓

우리나라 말은 육이 매우 발달한 언어이다. 흔히 육은 상스럽고, 비단이나 좋지 않은 감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 최근 강기수 동아대 교육학과 교수와 이점식 동아대 박사는 육의 유형을 4가지로 정리한 논문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쌍육은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인간본능이 그대로 표출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귀 육은 비아냥거림과 조소를 주를 이룬다. 또 익살육은 나름대로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익살육은 기발한 비유법과 함께 때로는 친근감을 갖게 하는 언어 유희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육은 부정적 기능 외에도 스트레스 해소, 사회질서 유지, 친밀감 증대, 집단 결속 등 긍정적 기능도 많다"고 주장했다. 육은 권한만한 것이 아니라 권력이야말로 권력을 갖게 하는 언어 유희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여기에서 구지람과 차벌의 뜻을 지닌 책벌육이 이른바 '4대 육'의 범주에 들어간다.

지난달 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중·고생 4명에게 4시간 동안 녹음을 달게 하고 조사한 결과, 학생 1명 당 평균 193.3회의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 가운데 욕설을 빼면 그들끼리의 사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 걱정이 커진다.

급기야, 교육과학기술부는 욕설이 심한 학생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해 입시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 번 입에 오른 욕설은 여간해서는 사라지기 어렵다는 점이 염려스럽다. /박기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욕설의 대화



NGO 칼럼



유일

지난 9월 30일 사회적기업 한마당 행사의 일환으로 '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공동 브랜드 명'을 공모한 결과, '한빛채움'이 시민들의 가장 많은 표를 얻어 브랜드 명칭으로 선정되었다.

'한빛채움'은 '하나의 빛을 내고 빛고음을 한빛으로 따뜻하게 가득 채운다'는 의미이다. 이 명칭이 선정된 이유는 광주 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에 빛을, 지역민에게 온기를 전달해주시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바람이라고 생각된다.

광주시 사회적기업은 2007년을 시작으로 그 숫자가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사회적기업에게 걸맞은 '멋진 이름'조차 없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회적기업 육성과 건강한 사회

기업에 걸맞은 '멋진 이름'조차 없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떤 기업이란 자사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대중에게 친근한 브랜드를 개발하고 그것을 대대적으로 알리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브랜드 공모전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던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제품·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홍보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광주시의 인종 사회적기업은 9월 말 현재 22개이며, 예비사회적기업과 광주형 사회적기업은 35개다. 장애인을 고용해서 EM(유용한 미생물)제품이나 쿠키를 만들어 파는 기업에서부터 어려운 이웃에게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기업,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기업 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현재 사회적기업은 관로 개척 부분이 매우 취약하다.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의 '질

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위 '돈이 되지 않는' 공공성이 짙은 일들을 맡아 하는 기업이다. 때문에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구매하지 않을 경우 명맥을 유지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

다시 말해 사회적으로는 필요하나 수익이 없는 재화나 서비스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구매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공구매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조례 등에 의해 '우선 구매할 수 있다'가 점차 '우선 구매한다'로 변경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책의 전달 체계가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로 변화됨에 따라 지역수요에 맞는 사회적기업 아이템 발굴이 수월해지고 지역사회와 밀착된 반면, 자치단체의 양적 팽창 요구로 인한 질적인 성장이 더딘 부분도 일부 존재한다. 가령 사업개발비나 일자리 창출 지원금을 분배할 때 많은 수에 나누어주다 보니 정말

필요한 곳에,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업과 아이템에 지원되는 것이 축소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정부지원책이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그저 그런 정부 보조금'이 되어 사중손실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회적기업의 자립을 위해서는 TV공고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검색과 소문이 용이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한,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내용을 넣어 어린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적기업의 의미를 이해하고 과제 수행을 통해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사회적기업에 대해 공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사람과 환경을 살리는 사회적기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이 필수적이다. 또 그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기업가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사회적기업지원센터장·순천대 교수)

기고



김창석

과학문명이 최첨단을 걷고 있는 오늘날 자칫 흔히해질 인간의 존엄한 정신가치를 문학을 통해 재조명함으로써 보다 성숙한 인간사회 지향을 목표로 하는 문화행사가 '한국문화특구 포럼'이란 이름으로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장흥군에서 개최된다.

한국문화특구 포럼은 전국 최초로 지정된 문화관광기획 특구인 장흥에서 지난 2009년부터 '전국 문인대회'란 간판을 내걸고 출발해 올해는 한국문화특구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개최하게 됐다.

전국 문인대회는 지난 2009년 이철준 작가, 2010년 송기숙 작가 등 해마다 문화특구 출신 경연작가들을 집중조명 해왔다. 올해는 한승원 작가를 조명하게 된다. 또 한국 문학 꿈나무들을 양성하자는 취지로 전국 고교생 백일장 대회를 개최하고 문화특구를 사유하는 현장바스투어와 작가와의 대담이 계획돼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 연수생들의 현장체험을 통해 문화특구의 세계화까지 구상하고 있다.

문화나들이는 장흥 '한국문화특구 포럼'으로

장흥은 남해바다 고깃배와 섬들을 바라보는 회진포구 언덕의 활기찬 활짝 핀 꽃과 천관산 억새 숲, 문학공원에 있는 역대 문인들의 시비와 유려상자에 안치된 옥필원고, 정남진문학관 등이 문화공원의 정서를 대변해 주고 있다.

장흥 문학의 역사는 뿌리가 깊다. 대동여지도로 만든 김정호와 버금가는 조선시대 천문지리학자인 존재 유희규 선생이 이곳 출신이다. 기봉 백광홍 선생의 '관서별곡'은 송강 정철이 '관동별곡'으로 표절했다는 학설이 나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흥은 남해바다 고깃배와 섬들을 바라보는 회진포구 언덕의 활기찬 활짝 핀 꽃과 천관산 억새 숲, 문학공원에 있는 역대 문인들의 시비와 유려상자에 안치된 옥필원고, 정남진문학관 등이 문화공원의 정서를 대변해 주고 있다.

장흥 문학의 역사는 뿌리가 깊다. 대동여지도로 만든 김정호와 버금가는 조선시대 천문지리학자인 존재 유희규 선생이 이곳 출신이다. 기봉 백광홍 선생의 '관서별곡'은 송강 정철이 '관동별곡'으로 표절했다는 학설이 나

으로 퍼지기 때문이다. 이미 고령자가 많은 농어촌 현실을 고려할 때 수백만원이 들어가는 철거 비용도 그렇고, 석면이 날리지 않게 하면서 철거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는 점은 정부가 더 잘

돌 만큼 유명하다. 지금에 와서는 고이철준 작가를 비롯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인이 100여명이나 된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에서 문인들을 포함해 300여명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단풍을 즐기기로 한 오뎨 산행이나 지역축제장 나들이도 좋지만 우리를 마을에 값진 양식을 쓸어 담은 만한 의미 있는 자리에 뜻있는 일반인들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싶다.

문인들만의 잔치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글로벌시대에 반도체와 스포츠에서 수학한 금메달에 우월대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우리나라도 노벨 문학상 수상자 한 명쯤은 배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 문화특구 포럼'의 명분은 분명하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민적 관심과 격려가 필요한 이유다.

(전 장흥 흥산면장·수필가)

농어촌 석면 슬레이트 지붕 제거 정부가 나서야

통계에 의하면 전국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만들어진 지붕이 40만 채나 된다고 한다. 이 지붕들은 60년대 새마을 운동 시절에 지어진 것이라 지금은 낡아서 바람만 불어도 발암물질이 날려 해당 농촌은 물론 도시까지 덮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우리 전남·북도 예외가 아니다. 필자가 살고 있는 순천뿐만 아니라 이 지역 농촌마을 대부분의 주택, 돼지와 소를 기르던 축사, 헛간 등이 모두 슬레이트로 되어있다. 몇십 년째 그냥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필 때 의무적으로 농어촌지붕개량 사업을 시행했으나, 이제는 정부가 책임지고 지붕을 철거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 슬레이트 지붕을 농민들이 함부로 철거하지 못하는 이유중 하나는 지붕철거에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철거 과정에서 자칫 엄청난 양의 슬레이트 석면 가루가 날릴 수 있기 때문이다.

농가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 제거는 이제 국민 모두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손을 써주기 바란다. 농가 지붕에서 날린 석면 가루가 농촌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광기와 바람을 타고 전국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Table with 2 main columns: 光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publication details.